



# 축사 지붕에 눈 쌓이지 않게, 가축 보온에 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 겨울 많은 폭설과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농가에서 지켜야 할 축사·가축관리 요령을 소개하며 축사시설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폭설 시 축사 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내의 온도를 높여줘 축사 지붕의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줘야 한다.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의해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축사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또한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축사가 폭설로 파손됐을 경우 긴급히 복구해주고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이나 감전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이와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가축 관리는 기온의 급강하와 같은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가축의 생산 활동과 유지에 좋지 않게 되므로 사료는 평소 급여량보다 10% 정도 늘려 급여한다. 개방식 축사의 경우 눈이 지속될 때는 가축의 피부표면에 붙은 눈이 얼을 뻔해야 체감온도가 낮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없애주고,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준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준엽 연구사는 “폭설이 예상될 경우 농가에서는 반드시 축사와 주변을 미리 점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노후하거나 재래식 축사일수록 지붕 상태를 세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준엽 연구사는 “폭설이 예상될 경우 농가에서는 반드시 축사와 주변을 미리 점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노후하거나 재래식 축사일수록 지붕 상태를 세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 폭설(대설) 축사관리 요령

#### 1. 축종별 가축관리 요령

##### 닭 관리요령

산란계는 저온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강하지만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면 사료섭취량이

늘고 산란율이 줄어 사료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 계사내 온도가 10℃ 내려가면 적온인 20℃에 비해 사료섭취량이 약 10% 늘고 5℃ 내려간다면 약 5%의 사료를 더 섭취하게 되며, 10g의 사료를 더 섭취할 경우 10,000수 규모의 농장에서는 하루에 100kg의 사료를 낭비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계사의 보온이 중요하다.

## 2. 폭설에 따른 축사관리

### 겨울철 축사관리 포인트

- ① 단열: 축사의 적정한 단열을 유지해라. 가축 사육으로 인하여 파손된 단열재가 있으면 보수한다.
- ② 셋바람: 지붕이나 벽의 공간으로 공기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윈치커튼에 구멍이 있으면 막아주고 커튼을 똑바르게 설치하여 뒤틀린 부분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③ 환기: 축사 내부에 순환 팬을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켜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분리층을 없앤다.
- ④ 제어기 관리: 타이머와 온도조절기 등이 정확한지 점검한다.
- ⑤ 육성: 육성하는 동안 사양관리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 주고 특히, 어린 가축은 정해진 온도로 첫 주를 사육한 다음 주령별로 온도를 내려줘 저온으로 인해 발육이 늦거나 또는 과잉 급온으로 인해 에너지가 낭비되지 않게 한다.
- ⑥ 환기량: 음압을 측정해 적정음압을 맞춰주고 낮을 경우 팬을 한 대 더 설치해 주고 높을 경우 입기구를 더 열어준다.
- ⑦ 축종별 주령과 축사 내부 환경에 따라 적절한 최소 환기량을 산정해 환기한다. **양계**



농장주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해드립니다.  
**자동화계사 청소대행**

**부성축산**

대표 : 이 재 완

대구시 북구 관음동  
TEL : (053) 324-7752  
FAX : (053) 324-7736  
H·P : 011-518-7752  
010-4000-9023